

지역 소식통

김제시, 코로나19 연기된 '이동신문고' 운영 재개

김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잠정 연기했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김제시민 외에도 인접 지역인 군산, 익산 및 부안군 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반에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일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상담 예약제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쉼터 1기 재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경중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1기를 중단하였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쉼터를 재개한다.

치매 환자 쉼터는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부담을 감소하고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강화한다.

재개하는 쉼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보다 축소하여 운영한다.

대상자 간 최소 간격 유지를 위하여 쉼터 대상자 수를 열 명 내외로 축소하고 대상자뿐 아니라 외부 강사,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고위험 시설 점검 강화

관내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 다시 점검 고백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6일부터 요일제 없이 상시 신청

완주군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역 내 고위험 시설의 대대적인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완주군은 11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유흥·단란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 강화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철저, 생활 속 거리두기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철우 부군수는 이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서 보듯 감염병과의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경계

심을 늦추선 절대 안 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 내 위생업소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군수는 "지역 내 단란·유흥주점들의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한 후 하루나 이틀 뒤엔 카드에 충전된다.

1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충전금 신청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오는 18일부터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완주=이중복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김제전력지사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김제사회복지관에서 김제시 검산동 내 저소득 노인 130명에게 케네이션을 비롯한 물품을 전달했다.

'사랑해 孝' 어버이날 나눔

한국전력공사 김제전력지사, 김제시 검산동 노인에 물품 전달식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김제전력지사(지사장 주경수)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김제사회복지관(관장 김준수)에서 '사랑해 孝 어버이날 나눔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이 중단된 김제시 검산동 지역 내 저소득 노인 130명에게 케네이션을 비롯한 나눔 물품을 가정으로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기념식을 생략하고 과일과 떡, 도시락 등 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전력 전북본부 김제전력지사 주경수 지사장은 "코로나19로 무료급료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끼니가 걱정이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작은 나눔이 큰 활력과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사회복지관 김준수 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을 담은 김제전력지사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 김제전력지사는 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물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써 지역사회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식품기업, 지역 농산물 원료 공급 협약

휴먼에노스, 비봉 농가에서

연중 상추 220톤 공급 받기로

완주군 기업이 관내 농산물을 원료로 공급받기로 협약하면서 동반성장이 이뤄지게 됐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식품기업인 (유)휴먼에노스(대표 천현수)와 비봉 상추 생산농가(대표 성형택)의 원료 공급 협약식이 소양면 (유)휴먼에노스 회의실에서 열렸다.

휴먼에노스는 생물전환기술로 기능성 음료, 캡슐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비봉 상추농가에서 연중 220톤의 상추를 공급받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은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갖추게 됐고, 농가는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으로 농업과 식품기업간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에 중요해지면서 이번 완

주군의 협약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휴먼에노스는 상추 이외에도 콩, 양파, 콩나물 등의 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어 향후 다른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국내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외 수출은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잠재적 성장 가치가 큰 회사로 전문가들 사이에 평가받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부터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

로컬푸드1번지 완주군이 농산물 가공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11일 완주군은 농산물 가공분야 창업교육과 완주 로컬푸드를 연계해 교육 및 컨설팅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완주군 농가공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를 위해 지난 4월 예비 창업자 1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을 대상으

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식품 가공과 창업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참여자의 창업 희망분야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 멘토와 함께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 이후에는 우수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제공한다.

또한, 로컬푸드 매장을 비롯해 귀농 귀촌, 청년정책 등 군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과 연계해 창업자들의 판로 확보와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 참여자 10명 중 5명이 창업해 로컬푸드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허브 찜뎀, 레몬청, 생강청, 누겨지지 않는 바삭한 튀밥 등을 판매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어르신 건강지킴이 앞장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위하여 보건진료소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부모님의 건강 및 안부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제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

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 상태 등 안부를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하고자 전화 상담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

김제시보건소(보건진료소)는 관할 지역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만성질환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허전 김제 부시장, 성산지구 주요 사업 현장 점검

허전 김제시 부시장은 11일 성산지구 일원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성산지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포함해 새뜰마을사업, 인구감소통합지원사업, 농약전통체험관 건립, 서예 문화 전시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주요 핵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사업대상지를 직접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살피는 등 협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성산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적 예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허전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제적 위기까지 직면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시민의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